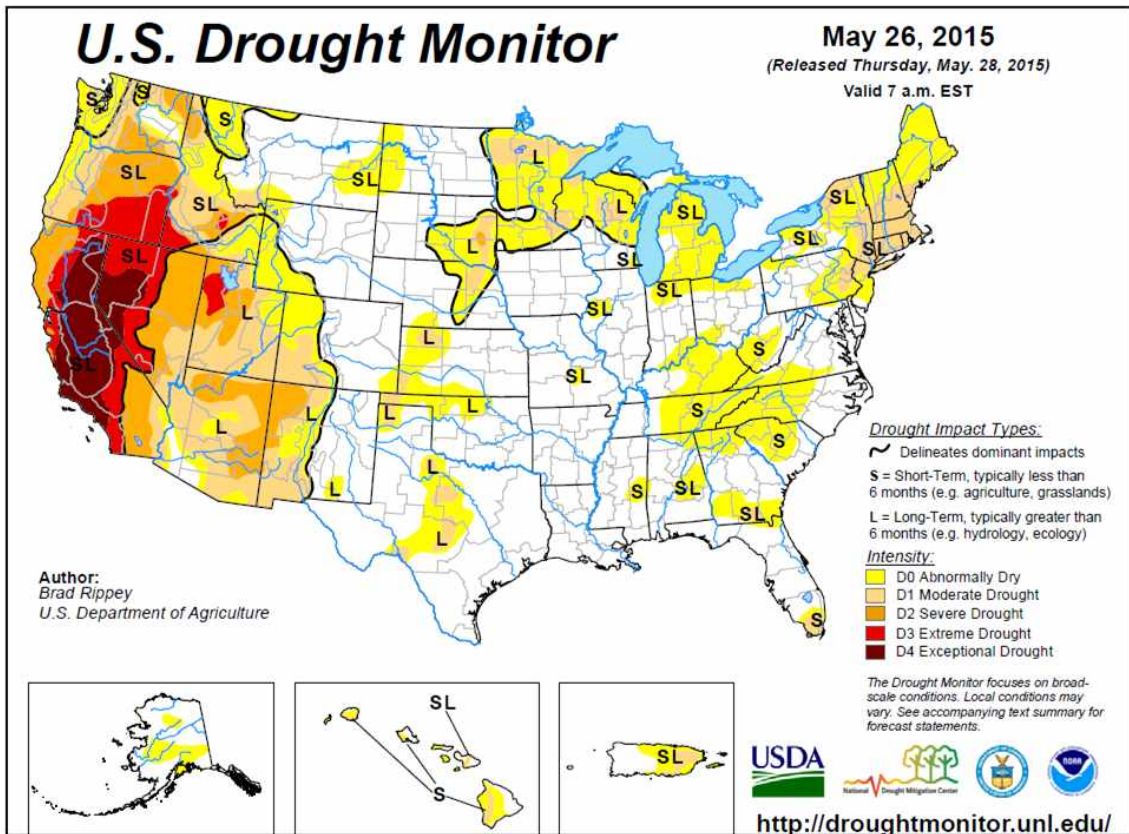


6월 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2)

□ 미국 기후 현황(5/24~5/30)



지난 주 남동부 평원과 중남부, 걸프 서부연안 해안지역은 땅을 흠뻑 적시는 비가 내렸고, 곳에 따라 강이 범람하기도 했다. 중부와 남부 평원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고 때때로 폭풍우가 몰아쳐 겨울밀 재배자들을 긴장하게 했다. 주 후반부로 가면서 소나기가 남동부의 건조한 지역으로 옮겨갔으며,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위스콘신, 미시건 등 그레이트 호(湖)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쏟아졌고, 뉴 잉글랜드 북부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오하이오 등지에서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중서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려 대두와 옥수수 파종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작물 성장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평원 북부 지역과 로키산맥 일대에도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태평양 연안과 남서부지방의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서부지역은 평년보다 10°F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대평원에서는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미시시피 계곡과 동부 해안 지대는 따뜻한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10°F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다.

## □ 농업 현황 요약(5/15~5/31)

남부와 대평원, 미시시피 계곡 저지대에는 강한 비가 이어졌고, 특히 알칸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는 6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그 외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에서도 평년보다 3인치 이상 많은 비가 내렸다. 로키 산맥과 대평원 지대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동부 옥수수 재배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6°F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었다. 태평양 북서부지역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오레곤과 워싱턴은 평년보다 평균 6°F 이상 기온이 높았다.

### ■ 옥수수

5월 31일까지 총 재배지의 95%가 파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난해와 직전 5년 평균보다 약간 앞선 상황이다. 5월 31일 기준 출수율은 84%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보다는 7%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5%p 앞선 것이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북부 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는 발아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이며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2%p 낮은 수준이다.

### ■ 가을밀

출수율은 이번 주말까지 84%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 동기보다 6%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7%p 앞선 것이다. 백맥(白麥)을 재배하는 오레곤과 아이다호 두 지역에서는 따뜻한 겨울 날씨가 지속되어 밀 생육에 좋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며, 출수율은 직전 5년 평균에 비해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4%가 매우 좋은 생육 상황을 보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14%p 높은 수준이다.

### ■ 면화

이번 주말까지 총 재배지의 6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파종이 끝났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11%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17%p 낮은 수준이다. 남부 대평원 지역에서는 습한 날씨가 이어져 면화 생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캔사스의 면화 파종은 직전 5년 평균보다 44%p 뒤쳐진 것이다(약 3주 정도 늦은 상황임). 오클라호마와 텍사스는 직전 5년 평균보다 각각 21%p, 24%p 뒤쳐졌다. 미국 전역에서 지난해보다는 2%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3%p 낮은 수준이다.

### ■ 쌀

5월 31일까지 총 재배지의 96%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파종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보다는 3%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2%p 뒤쳐진 것이다. 이달 말까지 출수율은 9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작년보다는 2%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3%p 앞선 것이다. 알칸사스 쌀 재배자 가운데 일부는 비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지만, 대부분의 재배자들이 비가 내리기 직전에 비료와 살충제 살포 작업을 끝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8%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지난주보다 2%p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작년 동기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세계 기후 현황(5/17~5/23)

■ 유럽: 남부와 동부에서는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강한 비가 지속되었으나 북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이탈리아 남부와 폴란드 남부지역, 발칸반도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태풍의 영향으로 25~70mm 수준의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번 비는 겨울 작물의 개화와 최근 파종한 해바라기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특히 봄 가뭄에 시달렸던 헝가리에서는 단비가 내려 작물 생장에 도움이 되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북서부 등에서는 대부분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어 겨울밀 개화가 촉진되었다. 독일의 경우 지난 주말 소나기가 내려(2-20mm) 평년보다 건조한 토양을 촉촉이 적셔주었다. 유럽 북부와 중부 지역의 주요 밀 재배지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C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스페인에서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겨울 작물의 생육과 수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 구소련(서부): 서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렸지만, 동부에서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는데(10-95mm), 이 덕분에 해바라기, 옥수수 등의 작물 생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Moldova 북부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서부-중부 지역은 비가 흩뿌리면서 지나가 농작업 하기에는 좋은 날씨 유지되었지만 여름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표층 수분을 유지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내린 비는(10-30mm), 가뭄을 다소 해소해 주었고, 겨울밀 개화에도 도움을 주었다. 러시아 남부 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 Krasnodar Oblast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 사이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25-50mm). 중부 지역과 Volga 남부지역 등에서는 낮 기온이 30°C 초중반까지 올랐고 겨울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강한 소나기가 내려 눈에 물을 가득 채워주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침수되기도 했다. 남부 대부분의 지방에서 25~100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Joangxi에서는 강우량이 250m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Yangtze 계곡에는 25-50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중국 북부 고원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밀 생육에 좋은 조건이 유지되고 있으며, 북동부 지역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어 대두와 옥수수 파종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 등 그 밖에 지역에서는 모내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 평년 강우량보다 낮은 강우량 탓에 작물 관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북동부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Liaoning과 인근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C까지 오르기도 했다.

■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지역 전역에는 비가 흩뿌렸고(25mm), 이번 비로 최근 파종한 겨울작물 생육에 적합한 수분이 유지되고 있다. 비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면화와 수수 수확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수확 작업이 끝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어 수확작업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겨울밀 생육에는 불리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남동부와 서부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유지되고 있으며, 농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밀과 보리, 카놀라를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표층 투양의 수분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발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가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이 유지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1°C 내외).

■ 아르헨티나: 겨울작물 재배지인 중부 지역에 상당량의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 지역에는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려 여름작물 수확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겨울 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분을 상당량 공급해주는 역할도 했다. Buenos Aires 남부지역과 Santa Fe, Entre Rios, Cordoba 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겨울작물 파종과 여름작물, 유지작물 수확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북부에서는 강한 비가 이어졌고(10-50mm,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100mm 이상), 이로 인해 면화 수확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말동안 기온은 평년을 웃돌았으며, 남서부 지역(La Pampa 남부, Buenos Aires 남서부 등)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수확률은 48%, 콩의 수확률은 9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월 28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작물의 수확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남부의 옥수수, 겨울밀 재배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Rio Grande do Sul 북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가 내렸다. 이 비는 Mato Grosso do Sul과 Sao Paulo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10mm 미만의 비를 뿌리기도 했다. 비로 인해 농작업은 지연되었지만, 겨울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Parana 주정부에 따르면, 옥수수 재배자의 61%가 5월 15일까지 파종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와 면화 재배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낮 최고기온은 30°C 중반까지 이를 것으로 보임)을 유지했다. 동부 해안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속되었으며(10-100mm),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의 생장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다.